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The Effects of the Rearing Attitudes of Mothers, Family Strength, and Self-Esteem  
on the School Life Adjustment Perceived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ring Attitudes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s School Life Adjustment

이복희(Bok-Hui Lee)\*

Department of Living Culture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hich variable has the biggest effect on the school life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mong family strength, self-esteem, and the mother's rearing attitude. Second, the study observes how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has a moderating effect regarding the rearing attitudes of their mothers and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Five hundred forty-five fifth and sixth graders from an elementary school in Cheonan, are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The key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rearing attitudes of the mothers, family strength, and self-esteem, the variable that showed the greatest relationship with positive school life adjustment was family strength followed by self-esteem. Second, The self-esteem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owed a 1% moderating significant effect between the rearing attitudes of the mothers and school life adjustment. In the high self-esteem group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showed a higher level of school life adjustment when the students perceived that their mother had an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 but showed a lower level of school life adjustment if they perceived their mother's rearing attitude as rejective or overprotectiv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 focus on increasing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 along with the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 of mothers is needed for the positive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주제어(Key Words) : 어머니의 양육태도(mother's rearing attitude),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 자아존중감(self-esteem), 학교생활적응(school life adjustment)

• 본 연구는 201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2013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주관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확장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Bok-Hui Lee,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 Jibong-ro, Wonmi-gu, Buchun-si, Gyeonggi-do 420-743, Korea, Tel: +82-2-2164-4485, E-mail: gaudensia@catholic.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현대인 대부분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여러 단계의 학교생활을 거친 후 사회에 진출하여 자아성취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를 떠나 홀로 살아가기 어려우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어진 환경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학교는 인간의 지적·사회적·정서적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장 환경이고 사회화 과정의 대행자이며(Shaffer, 1999), 또한 가족에서 사회로 확대되어가는 장으로서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로 확대해 가는 연속적이고 단계적인 환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A. Yoo, J. Lee, & J. Suh, 2004).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학생에게 있어서 생애주기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성취와 적응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C. L. Bagwell, A. F. Newcomb, & W. Bukowski, 1998).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부적응에 더하여 학교 중단에 이르는 학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통계자료(한국교육개발원)를 보면 2012년도 현재 학교중단 학생(학업중단율=(학업중단자 수/전년도 학생 수)×100)이 초등학생 0.6%, 중학생 0.9%, 고등학생 1.8%, 일반대학생 4.0%, 전문대학생 7.7%로 발표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S. Park, 2014; B. Kim, 2013; Y. Im, 2013; E. Bae, 2012; H. Park, 2011; M. Yun, 2006)가 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으로 모든 국민이 거쳐야 하는 교육의 기초 단계이고,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인 아동기는 청소년기로 이행되는 신체적·심리적·정서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급격하게 겪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들은 사회적으로 조성된 과도한 교육열과 학업성적 위주의 치열한 경쟁구조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201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 대부분(80.9%)이 학교에서의 학습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는 다양한 사교육에 떠밀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오늘날 초등학교들은 인간 발달 단계에서 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사회적 현상인 과도한 학업성적에 대한 압력 상태에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야 한다는데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생활의 첫 단계요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마지막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듯이 초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계속되는 다음 단계의 학교생활 및 이후 성인기의 사회생활 적응과 자아성취도 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요인들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류한 국내의 연구에서 W. Lee and D. Kim(2009)은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으로 분류하였고, J. Cho(2012)는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지역사회특성이라고 분석하였으며, Richman, Bowen, and Woolley(2004)는 가족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이라고 분류하였다.

각 요인에 관한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요인에는 성별, 학년(나이),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자기통제, 문제행동, 우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있고, 가족요인에는 부모변인(어머니 취업 여부, 부모연령, 부모교육수준, 가정경제), 부모양육태도, 가족건강성 등이 있다. 또한, 학교요인에는 교사관계, 교우관계(또래), 학교규칙, 학업성취, 학교환경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 특성에는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의 물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주변 환경적 특성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학교생활적응 요인 가운데 개인요인인 지각된 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가족요인인 가족건강성 요인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지각된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중재효과가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지각된 양육태도 요인에 관한 정의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ecker(1964)는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자녀의 성격, 태도, 행동, 가치체계뿐만 아니라 인지·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urlock(1978)은 아동의 인성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성발달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고, W. Chung(1989)은 인간의 성격형성 과정은 어려서의 경험이 중요하고, 부모의 위치, 역할, 기능이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가정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은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J. Tein, M. W. Roosa, & M. Michaels, 1994). Schaefer(1965)는 양육태도를 측정할 때 부모의 지각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즉, 지각된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자녀의 지각이 부모의 실제적인 양육행동보다 자녀의 인성적·

행동적 특성과 더 관련된다고 논의하였다. J. Kim and J. Park(1997)은 초등학교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태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어머니의 95%는 자신이 바람직한 자녀 양육태도를 가졌다고 인식하였지만, 자녀는 79%만이 어머니의 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고하였고, H. Ahn(1999)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제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 스스로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더 크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부모의 양육태도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로 드러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H. Kim(2012)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라고 인식하는 아동은 학교생활에서도 잘 적응한다고 하였으며, S. Nam and J. Baik(2011)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였다. 한편 K. Lee, M. Lee and B. Han(2009)은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융통성을 가지고 대해야 하고 자녀가 성실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S. Choi(2009)는 부모의 수용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은 긍정적 자아개념을 이루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H. Han(2012)은 애정형, 자율형, 성취형, 합리형 양육태도 모두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고, 부모양육태도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자기효능감은 다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모양육태도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 Lee and Y. Shin(2010)은 어머니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유아의 분노가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고, 어머니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좌절된 경험이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은 정서조절능력이 떨어지고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의 자기조절 수준에 따라 보육경험과 공격성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조절이 발달한 유아는 또래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교사의 지시에 순응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보육시설의 집단생활에 쉽게 적응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장기간의 보육경험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보육경험이 자기조절과 상호작용하는 기제를 통하여 유아의 공격성과 같은 심리사회적 부적응 행동으로 발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지각된 양육태도는 초등학생이나 유아의 자아개념, 성격, 태도, 행동, 가치체계뿐만 아니라 인지·정서 등 인성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교생활이나 보육시설 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각된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조절효과를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음은 가족건강성 요인으로, 가족이란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격, 성격, 가치관, 윤리관, 인생관 등 인간에 관한 모든 면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장이며 환경으로써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사회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E. Eo(1996)는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어 가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고, Medinnus(1967)는 가정을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단위이며 특히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관계가 아동기의 성격형성이나 정서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Olson and DeFrain(2003)은 가정은 잠재적인 성장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건강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의 건강성은 가정의 구조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라고 건강가족 관점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또한, 이들은 전 세계 27개국의 21,000여 가족을 조사한 결과 건강가족의 특성으로 헌신,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신적 안녕, 감사와 애정, 질적 시간의 공유,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 여섯 가지를 제안하였고, 여러 학자의 견해를 종합하여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으로 특성화하였다. 그리고 E. Eo and Y. Yoo(1995)는 건강가족의 특성을 가족 간의 유대감,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가치체계공유라고 하였다. 또한, Y. Yoo(2004)는 건강한 가족요인을 가족 간의 유대, 존중, 감사와 애정,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및 목표공유, 문제해결능력, 사회와의 유대, 경제적 안정이라고 하였다. K. Kim and E. Choi(2010)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에 대한 환경은 학교적응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족집단의 특성을 배제한 채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학교적응과 가족건강성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K. Kim and E. Choi(2010)는 청소년과 가족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곧 가정의 건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며, 가족의 강점과 성장 및 긍정적인 부분의 탐색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K. Kang, Y. Kim, M. Park, M. Song and M. Lee(2012)는 오늘날 가정은 가족구성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가정의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가정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생활의 터전이고, 사회에서의 경쟁이 심해질수록 가족구성원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제공해 주는 생활공동체로서 가정의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고 하였다. J. Lim(2005)은 가족건강성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였으며, M. Sim and S. Hwang(2013)은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Y. Kim, S. Lee and H. Shin(2008)은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였다. 또한, J. Oh(1999)는 가족건강성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연구를 통해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인 자신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제시하면서 개인의 성격형성에 있어 가족구성원들이 높은 영향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은 일차적 사회 환경으로 불가분의 관계이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장환경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남과 더불어 가족의 건강성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M. Sim & S. Hwang, 2013; Y. Kim, S. Lee & H. Shin, 2008; J. Lim, 2005)이 드러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이 초등학교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관계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에 대하여 Harter(1999)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하였으며, H. Kim(1998)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적·감정적 태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Coopersmith(1967)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긍정적·부정적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롭다고 여기는 정도라고 하였고, Rosenberg(1979)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감정을 말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현재의 자신에 만족해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I. Song(1984)은 자기에 대한 중요한 느낌으로서의 긍정적 자아개념으로 정의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란 첫째, 우리 자신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며, 인생살이에서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둘째, 우리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하였다. Y. Do(2008)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

하여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고, 자신이 중요하고 유능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보는 정도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라고 하였다. S. Kim(2003)은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동일 개념으로 보았고, J. Lee(2011)는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기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여러 학자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보면 자아존중감이란 자아개념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적·감정적 태도를 의미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가치 있게 느끼고 자신을 능력 있는 존재로 여겨 무슨 일을 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우울이나 불안이 낮고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부모와 의사소통을 잘하였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고, 학업성적도 높았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E. Lee & T. Yeo, 2013; S. Park & C. Yoon, 2013; K. Park, 2011; E. Park, 2010; E. Kang, 2009; J. Bang, 2008)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우울과 불안이 높았고, 학교부적응이나 학교중단을 나타냈으며, 부모와의 갈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 과민성, 공격성, 충동성 및 소외감, 약물남용, 자살과 비행 등 학교부적응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 Lee, 2013; S. Kim, 2011; I. Lee & K. Lee, 2008; Y. Jang, 2003; Rosenberg, 1979). S. Kim(2002)은 고등학교생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상관이 있었는데,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없었으나, 학교적응은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이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또한, S. Park and C. Yoon(2013)은 본 연구와 투입한 변인은 달랐으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이라고 하였다. H. Kim(1998)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며, 이것은 또한 자아존중감 중 가정적 자아와 학업 및 전반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영역 중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는 청소년의 우울 및 생활만족도 두 적응 지표에 영향을 미치며, 성격적 자아는 우울에, 학업 및 전반적 자아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환경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적응과의 관계성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개인이 생활하는 환경 즉 가정에서의 경험임을 고려해 볼 때,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각된 양육태도와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지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각된 양육태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S. Choi, 2009; S. Nam & J. Baik, 2011; H. Kim, 2012; H. Han, 2012),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의 관계(J. Lim, 2005; S. Lee & H. Shin, 2008; M. Sim & S. Hwang, 2013),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J. Lim, 2005; Y. Kim, S. Lee & H. Shin, 2008; K. Kim & E. Choi, 2010; M. Sim & S. Hwang, 2013)를 살펴본 결과 그 관계성이 드러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중재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독립변수(J. Song, 2014)로써, 다른 독립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를 밝혀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J. Park and M. Lee(2014)은 부모감독의 중재효과는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보다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 우울을 더 완화 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감독을 감시, 통제 의미로 지각하고 우울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함으로써 중재효과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를 밝혀냈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의 형성 및 발달의 주된 영향 요인이 개인이 생활하는 가족환경 즉 양육환경에서의 경험임을 고려해 볼 때(H. Kim, 1998), 지각된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게다가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그 결과를 밝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 지각된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상호작용하여 학교적응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첫째, 지각된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가족건강성 가운데 어느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과 둘째,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개인요인인 지각된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지도하는 부모와 교사에게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는 지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

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2-1]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지각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2-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지각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2-3] 초등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1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97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 545명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269명(49.4%)이고, 여학생이 276명(50.6%)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5학년 학생이 285명(52.3%)이고, 6학년 학생이 260명(47.7%)으로 5학년 학생이 25명(4.6%) 정도 더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 295명(54.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고졸로 192명(35.2%), 세 번째로 대학원 졸업이 51명(9.4%)이고, 네 번째가 중졸 이하로 7명(1.3%)이었다. 아버지 학력은 대졸이 320명(5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이 151명(27.7%)이었고, 다음이 대학원졸업으로 69명(12.7%)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중졸 이하가 5명(0.9%)이었다. 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정경제 수준은 보통이 357명(65.5%)으로 가장 많았고, 조금 잘 사는 편이 139명(25.5%)이었으며, 아주 잘 사는 편이 25명(4.6%), 조금 못 사는 편이 24명(4.4%)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은 있다가 349명(64%)이었고, 없다가 196명(36%)으로 나타나 직업이 있는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어머니보다 약 1.8배로 더 많았다.

### 2. 측정도구

#### 1) 양육태도

스웨덴에서 제작된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 척도(My

memories of upbringing'의 스웨덴 동의어인 Egn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 EMBU-shot)를 초등학생에 알맞게 용어를 수정한 것으로, I. Jang(2012)이 사용한 것이다.

기본 척도 총 81문항을 23문항으로 단축한 것을 H. Jo가 2007년에 번안하였다. EMBU-shot는 거부적 양육태도 7문항, 애정적 양육태도 8문항, 과보호적 양육태도 8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4점 척도로 거부적 양육태도와 과보호적 양육태도 문항은 모두 부정적으로, 애정적인 문항은 모두 긍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문항은 역점수화하지 않고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적, 애정적, 과보호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예를 들면, '어머니는 명확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내게 화를 내시거나 불쾌해 하신다'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거부적이라고 해석하였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alpha$ 는 거부적 양육태도가 .78, 애정적 양육태도가 .82, 과잉보호적 양육태도가 .64였고, 문항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1문항을 삭제하였다.

## 2) 가족건강성

가족의 건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가족이 제시하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과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E. Eo and Y. Yoo(1995)가 제작한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 건강성 척도는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10문항), 의사소통(9문항), 문제해결능력(6문항), 가치체계공유(9문항)와 같이 4개의 하위영역,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하위영역의 내용구성을 보면, 첫째,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는 가족원 간의 친밀감, 애정, 함께 시간 보내기, 가족의 화목, 관심, 지지, 사생활 인정 등 정서적인 측면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정도, 개방성, 명확성, 표현의 자유, 의사소통 유형, 의사결정 시의 발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가족의 문제 해결 수행능력은 문제와 위기 발생 시 가족원이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공유는 가족만의 가치관이나 규범이 있는지, 가족의 가치관이나 규범에 가족원이 모두 동의하는지, 혹은 연장자에 대하여 존경하는 태도를 가졌는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 하위요인별로 영향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족건강성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4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지 않고 34문항 전체를

가족건강성 하나의 요인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을 하였는데, 요인을 가족건강성 1 요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된 총분산이 48.04%였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aiser-Meyer-Olkin(KMO)값이 .976으로 상당히 높았으며,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이 .000으로 요인분석으로 적합하게 나타났으나 공통성에서 5문항이 0.4 이하로 나타나 5문항을 삭제하고 요인분석을 다시 한 결과 설명된 총분산이 52.79%, KMO값이 .978, Bartlett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이 .000, 공통성이 모든 문항에서 0.4 이상으로 나타나 최종 29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5점 척도로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와 같은 문항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채점되었으며,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은 자신의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alpha$ 는 .97이었다.

##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RES)을 B. Jon(1974)이 번안한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5개의 긍정문항과 5개의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5점 척도로 예를 들면,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채점되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점수화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은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4)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M. Song(1999)이 수정 보완한 '학교생활 적응 검사'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 적응 척도는 교사 관계(8문항), 교우관계(8문항), 수업태도(8문항), 학교규칙(8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생활적응 4개의 하위요인의 내용구성은 첫째, 교사 관계로 학생과 교사와의 조화로운 관계 정도, 도움을 청하려는 정도, 꾸중에 대한 반응, 긍정적 감정표현의 적절성 여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교우관계는 친구와의 조화로운 관계, 친구에 대한 관심 여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학교수업은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공부할 때의 어려움, 주어진 문제의 해결 여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학교규칙은 학교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지의 여부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5점 척도로 예를 들면, '나는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와 같은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채점되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점수화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alpha$ 는 .89였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3년 2월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1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3일 후에 597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최종 545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각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요인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둘째, 측정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고,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측정변수의 일반적 경향

측정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M=1.64$ ,  $SD=.48$ ), 애정적 양육태도( $M=3.12$ ,  $SD=.50$ ), 과보호적 양육태도( $M=2.16$ ,  $SD=.46$ )는 척도의 범위(1~4)를 고려할 때, 애정적 양육태도는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고, 거부적 양육태도와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중간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들이 어머니의 애정적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545)

Measurement variable		M	SD	Min-max value	Levels in the range of scales
Mother's Rearing attitude	Rejective rearing attitude	1.64	.48	1.00 - 3.29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	3.12	.50	1.14 - 4.00	1 - 4
	Overprotective rearing attitude	2.16	.46	1.00 - 4.00	
Family strength		3.57	.69	1.17 - 5.00	1 - 5
Self-esteem		3.62	.71	1.10 - 5.00	1 - 5
School adjustment		3.37	.51	1.65 - 4.87	1 - 5

Table 2. Intercorrelations among Perceived by Mother's Rearing Attitude, Family Strength,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N=545)

		Mother's rearing attitude			Family strength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Rejective rearing	Affectionate rearing	Overprotective rearing			
Mother's rearing attitude	Rejective rearing	1					
	Affectionate rearing	-.56**	1				
	Overprotective rearing	.53**	-.20**	1			
	Family strength	-.51**	.71**	-.18**	1		
	Self-esteem	-.39**	.47**	-.22**	.54**	1	
	School adjustment	-.36**	.53**	-.14**	.64**	.61**	1

\*\* $p < .01$

양육태도를 평균적으로 중간수준 이상, 거부적,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평균적으로 중간수준 이하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M=3.57, SD=.69), 자아존중감(M=3.62, SD=.71), 학교생활적응(M=3.37, SD=.51)은 척도의 범위(1~5)를 고려할 때 중간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Table 2>를 실시하였다.

먼저,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애정적 양육태도(r=-.56, P<0.01), 가족건강성(r=-.51, p<0.01)과 높은 부적 상관을, 자아존중감(r=-.39, p<0.01), 학교적응(r=-.36, p<0.01)과 부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과보호적인 양육태도(r=.53, p<0.01)와는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거부적 양육태도(r=-.56, p<0.01)와 높은 부적 상관을, 과보호적 양육태도(r=-.20, p<0.01)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가족건강성(r=.71, p<0.01)과는 아주 높은 정적 상관을, 자아존중감(r=.47, p<0.01), 학교생활적응(r=.53, p<0.01)과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가족건강성은 자아존중감(r=.54, p<0.01), 학교생활적응(r=.64, p<0.01)과 상당히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r=.61, p<0.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2.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3>을 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

응을 설명하는 총 설명력은 51%였다( $R^2(\text{adj. } R^2)=.51(.51)$ ).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해보아야 하므로 공차와 분산팽창지수(VIF)를 살펴보았다. T. Seong(2012, p. 266)은 안정적인 회귀계수의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분산팽창지수는 낮고 공차는 높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차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모두가 1에 근접할 때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VIF의 경우 10 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한편 J. Song (2014, p. 152)은 공차(Tolerance)의 한계는 0.1 이하일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차를 살펴본 결과, 거부적 양육태도(.48), 애정적 양육태도(.43), 과보호적 양육태도(.70), 가족건강성(.43), 자아존중감(.68)이었고 모든 변수에서 공차는 0.1 이상이였다. VIF는 거부적 양육태도(2.07), 애정적 양육태도(2.31), 과보호적 양육태도(1.44), 가족건강성(2.32), 자아존중감(1.48)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에서 2에 가깝고 1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잔차의 정규성, 선형성, 등분상성 및 상호독립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봤는데 DW=1.92로 2에 가까워 상호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나(S. Woo, 2011, p. 339)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투입된 변수들 가운데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가족건강성( $\beta=.39, p<.001$ )이었고, 두 번째는 자아존중감( $\beta=.37, p<.001$ )이었으며,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요인인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M. Sim and S. Whang(2013), Y. Kim, S. Lee and H. Shin(2008), J. Lim(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S. Lee, J. Park, Y. Lim, Y. Chang and S. Auh(200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 한편 사용한 척도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School Life Adjustment

(N=545)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t
	B	Standard error		
Rejective rearing attitude of mothers	.02	.05	.02	.35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 of mothers	.09	.05	.09	1.90
Overprotective rearing attitude of mothers	.03	.04	.03	.74
Family strength	.29	.03	.39	8.57***
Self-esteem	.26	.03	.37	10.01***
$R^2(\text{adj. } R^2)=.51(.51), F=112.83***$				

\*\*\*p < .001

는 달랐으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은 없었고 간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S. Lim(201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3. 지각된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지각된 양육태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회귀분석 <Table 4>, <Table 5>, <Table 6>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양육태도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지각된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서 투입하였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를 편차화(centered data=원점수-평균) 하였다(S. Moon, 2010, p. 144).

1) 거부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초등학생이 지각한 거부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4>를 보면 1단계에서는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는데,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관하여 각각 독립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애정적, 수용적,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H. Kim, 2012; S. Ki, 2012; S. Nam & J. Baik, 2011; K. Lee

& B. Han, 2009)을 보고 한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1단계에서 투입한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두 변수의 설명력은 39%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투입한 변수인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서 투입한 결과, 부적( $\beta=-.10$ )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유의미한 ( $\Delta F=8.56^{**}$ ) 설명력이 1% 추가되었다. M. Choi(2000, p. 67)는 상관이 높은 변인 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알려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지각된 거부적, 애정적,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r=-.39^{**}$ ,  $.47^{**}$ ,  $-.22^{**}$ )를 볼 때 1%의 중재효과는 그다지 낮은 효과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분석하였다. 먼저 잔차의 정규성, 선형성, 등분상성 및 상호독립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보았는데 DW값이 1.90으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여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상호작용효과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각각 상집단과 하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원분산분석을 하였다. 조절효과를 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거부적 양육태도를 낮게 지각할 때 학교적응력이 높게 나타났고, 거부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적응력이 낮아졌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조절효과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Life Adjustment and Rejective Rearing Attitude of Mothers (N=545)

Independent	dependent	School life adjustment			
		Step 1		Step 2	
		B	$\beta$	B	$\beta$
Rejective rearing attitude	-.16	-.15***	-.18	-.17***	
Self-esteem	.40	.55***	.39	.54***	
Rejective rearing attitude * Self-esteem			-.16	-.10**	
$R^2$ (adj. $R^2$ )		.39(.39)		.40(.40)	
F		172.55***		119.49***	
$\Delta R^2$		.39		.01	
$\Delta F$		172.55***		8.56**	
DW			1.90		

\*\*p < .01, \*\*\*p < .001

Table 5.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Life Adjustment and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 of Mothers (N=545)

Independent	dependent	School life adjustment			
		Step 1		Step 2	
		B	$\beta$	B	$\beta$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	.31	.31***	.31	.31***	
Self-esteem	.33	.46***	.34	.47***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 * Self-esteem			.09	.08*	
$R^2(adj. R^2)$		.44(.44)		.45(.45)	
F		215.59***		146.75***	
$\Delta R^2$		.44		.01	
$\Delta F$		215.59***		5.49*	
DW			1.90		

\* $p < .05$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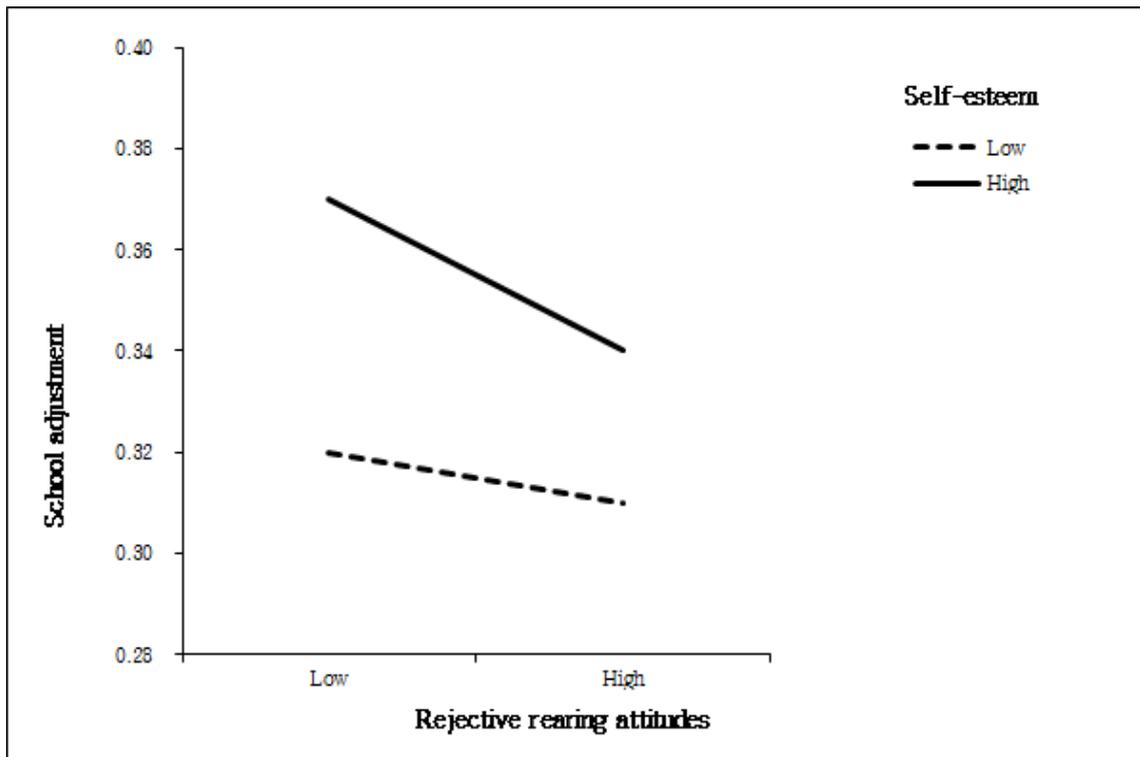


Figure 1.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ve Rearing Attitude of Mother's and School Life Adjustment

2) 애정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중재효과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5>를 보면 1단계에서는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는데,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적응에 관하여 각각 독립효과가 있었다. 이들 두 변수는

Table 6.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Life Adjustment and Overprotective Rearing Attitude of Mothers (N=545)

Independent	dependent	School life adjustment			
		Step 1		Step 2	
		B	$\beta$	B	$\beta$
Overprotective rearing attitude		.00	.00	-.00	-.00
Self-esteem		.44	.61***	.43	.59***
Overprotective rearing attitude * Self-esteem				-.17	-.12**
$R^2$ (adj. $R^2$ )		.37(.37)		.38(.38)	
F		159.36***		112.41***	
$\Delta R^2$		.37		.01	
$\Delta F$		159.36***		12.03**	
DW		1.89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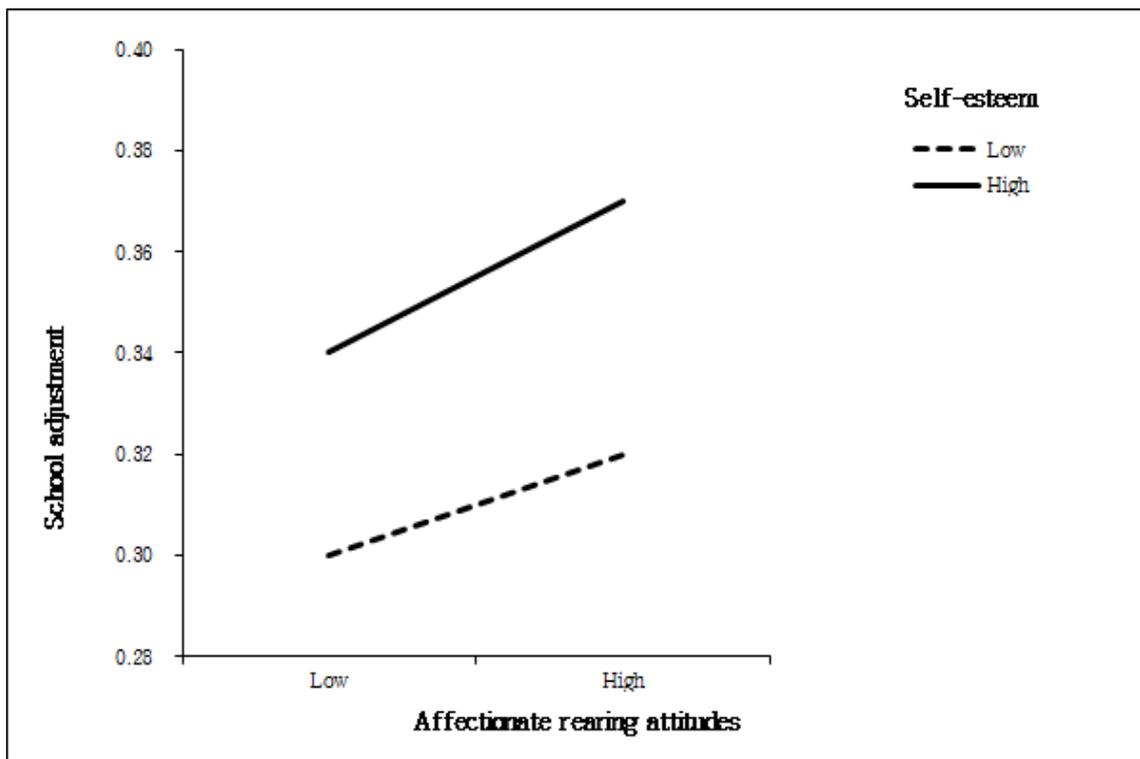


Figure 2.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 of Mother's and School Life Adjustment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44%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서 투입한 결과 유의미한( $\Delta F=5.49$ ) 1%포인트의 설명력이 추가되었고, DW=1.90이었다. 따라서 초

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애정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분석하면 <Figure 2>와 같다.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각각 상집단과 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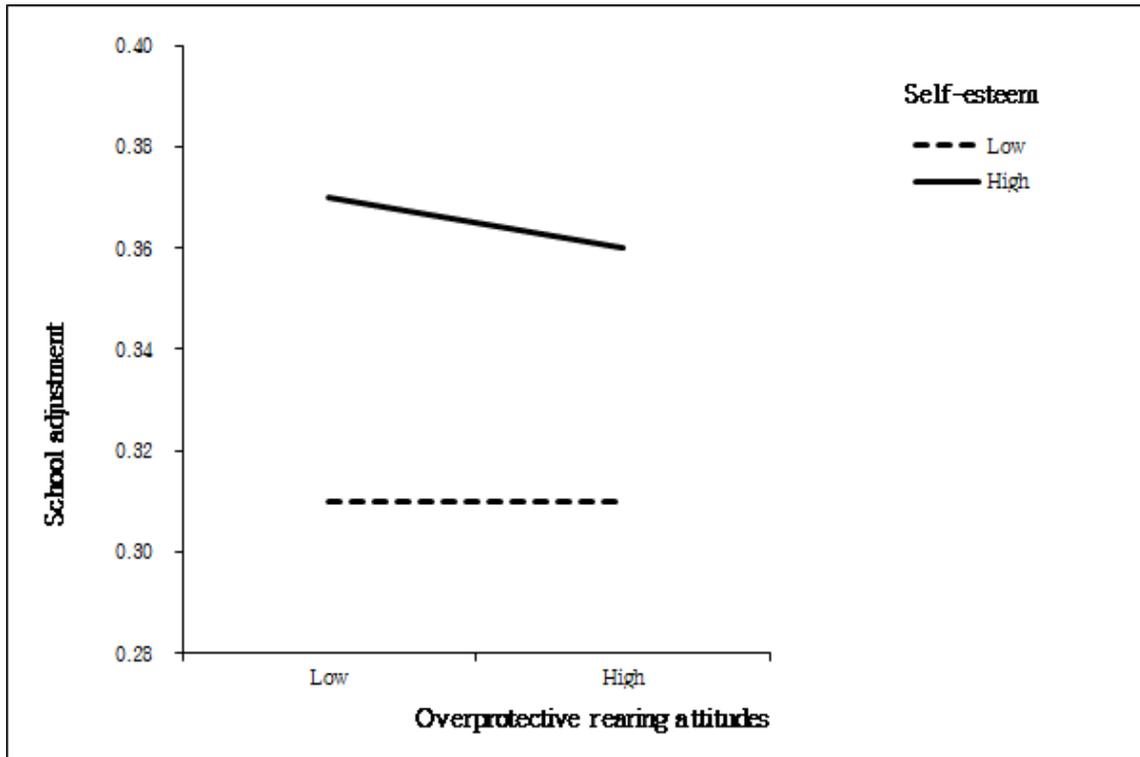


Figure 3.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protective Rearing Attitude of Mother's and School Life Adjustment

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원분산분석을 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애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아졌고, 애정적 양육태도를 낮게 지각할수록 학교적응력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 낮은 집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3)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6>을 보면 1단계에서는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독립효과가 없었고,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독립효과가 있었으며, 학교적응을 37%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서 투입하였다. 그 결과 DW=1.89로 나타났고, 1%의 유의미한( $\Delta F=12.03^{**}$ ) 조절효과가 있었는데, 초등학생은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적응력이 낮아지는 것( $\beta=-.12$ )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3>과 같다.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각각 상집단과 하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원분산분석을 하였다.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이라고 느낄수록 학교적응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 의하여 학교적응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가운데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요인인 가족건강성이었고,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이었으며, 지각된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건강성요인이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결과는 Y. Kim, S. Lee and H. Shin(2008), J. Lim(2005), S. Lee, J. Park, Y. Kim, Y. Chang and S. Auh(2009)의 연구와 같았고, M. Sim and S. Hwang(201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으며, 지각된 양육태도가 유의미한 직

접적인 영향이 없었다는 결과는 S. Lim(201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한 초등학생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지원과 안정을 얻고, 가족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학습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학교에서도 또래나 교사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유지함과 아울러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았다. 또한, 이들은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을 이미 가정에서 학습하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위기상황도 바람직하게 잘 극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요인인 가족건강성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건강가족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E. Kang(2009), K. Park(2011), J. Bang(2008)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함으로써 가족건강성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거부적 양육태도와 애정적 양육태도는 단독효과가 있었으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단독효과가 없었다.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는 거부적 양육태도·애정적 양육태도·과보호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모두 1%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었다. M. Choi(2000, p. 67)에 의하면 상관이 높은 변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지각된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Table 2>를 볼 때 1%의 중재효과는 그다지 낮은 효과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M. Choi(2000)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는 남자의 경우 중재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변인은 연구문제에 포함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었으나 추후 성별 변인에 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을 때, 거부적,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낮을 때 학교적응이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애정적 양육태도가 낮을 때,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을 때 학교적응이 낮았으며,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낮게 지각할 때에는 조절효과가 거의 없었다. J. Park and M. Lee(2014)는 부모감독의 중재효과는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보다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 우울을 더 완화 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감독을 감시, 통제 의미로 지각하고 우울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거부적,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 때 학교적응 낮아지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S. Kim and H. Kim(2011)의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순기능적일 때 학교적응이 높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학교적응이 낮았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의 애정적 양육태도로 지각한 경우 학교적응이 높고 거부적 양육태도로 지각한 경우 학교적응 낮아진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C. Kim, M. Cho, M. Choi and J. Kim(2013)은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적응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중재효과에 관하여 정상아동과 비만아동을 비교한 결과 정상아동에게서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연구 요인과 변인이 달라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생은 건강한 가족환경에서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할 때 학교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 거부적 양육태도와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 때에는 오히려 학교적응력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초등학생의 학교적응력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자녀가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고 거부적,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낮게 지각하도록 하는 처방적인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부모가 조성하는 가족환경과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환경과는 다를 수 있다는 Schaefer(1965)의 지적대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지각에 중점을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요인인 가족건강성이었으며,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이었고, 지각된 양육태도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거부적·애정적·과보호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는 각각 1%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 때 학교적응도가 높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과보호적이라고 높게 지각할 때는 오히려 학교적응

도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과 관련하여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족건강성이었고, 두 번째는 자아존중감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은 연령상 직업이나 부모 역할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요인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자녀의 특성에 맞는 처방적이면서 체계적인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하여 초등학생 자녀들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을 높여 준다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건강성은 양육태도와 같이 자녀와 부모가 지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와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을 쌍으로 조사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 애정적 양육태도라고 지각할 때에는 학교적응이 높아졌으나 거부적·과보호적이라고 지각할 때는 오히려 학교적응력이 낮아졌다. 그러나 지각된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검토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거부적·과보호적이라고 높게 지각하면 학교적응력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은 부모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방식과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수용적인 양육태도와의 관계성이 높고(C. Kwon & D. Yi, 2011) 폐쇄형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학교적응이 떨어진다(E. Kang, 2009)는 연구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나 원인이 무엇인지는 후속 연구에서 밝혀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대상의 제한 점이다. 연구의 대상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1개의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극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요인보다는 가족요인인 가족건강성이었고, 두 번째 요인은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운데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의 순으로 나타난 연구(Y. Kim, S. Lee & H. Shin, 2008)와 일치하며, 또한 가족건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난 여러 선행연구(K. Kim & E. Choi, 2010; J. Lim, 2005; M. Sim & S. Hwang, 2013)와 맥을 같이함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 건강한 가족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실증적인 증거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둘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거부적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 과보호적 양육태도 각각에서 1%의 유의미한 중재효과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 때 학교적응도가 높았고, 거부적·과보호적이라고 높게 지각할 때는 오히려 학교적응도가 낮아졌다. 이러한 조절효과의 정적효과 및 부적인 효과는 J. Park and M. Lee(2014)의 연구에서 부모감독의 중재효과는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보다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 우울을 더 완화 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감독을 감시, 통제의 의미로 지각하고 우울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였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높여주고 거부적,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는 낮게 지각하도록 조절해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 REFERENCES

- Ahn, H. J. (1999).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their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Bae, E. J. (2012). *A study on the path analyses of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risk behaviors -focused on the school dropout, school violence and teenagers runawa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Jeonbuk, Korea.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

- ment, 69(1), 140-153.
- Bang, J. A. (2008). *Relations between acculturatio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tudents studying abroad at early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Becker, W. C. (1964).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 Cho, J. A. (2012). Identifying latent classes i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testing eco-system variables as predictors of latent classes. *Studies on Korean Youth, 23*(1), 277-309.
- Choi, M. R. (2000).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S.-H. (2009).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s' raising methods on the children's self-conception and school adaptation. *The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9*(2), 189-211.
- Chung, W. S., Lee, S. H., & Lee, S. J. (1998). *Modern education psychology*. Seoul: Educational Publishers.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Do, Y.-S. (2008). *Effect of indoor sand play on the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of pre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Eo, E. J., & Yoo, Y. J. (1997). 『Korean urban family strengths and its related variables - For the homemaker's who have education period of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5*(4), 269-285.
- Eo, E. J., & Yoo, Y. J. (199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1), 145-156.
- Han, H. J. (2012). *Mediating effect of elementary students'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Y.: Guilford.
- Hurlock, B. E. (1978). *Child development (6th ed.)*. New York: McGraw-Hill.
- Im, Y.-H. (2013).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latent interruption academic work of students of vocational high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Jang, I. S.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 and peer relationship; mediator effects of self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Y.-S.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maladjustment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Jon, B.-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College of Liberal Arts, Yonsei University, 11*(74. 6), 107-130.
- Kang, E.-J.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communication standard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children's adjustment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n University, Gangwon, Korea.
- Kang, K. J., Kim, Y. H., Park, M. K., Song, M. H., & Lee, M. S. (2012). *Healthy family(2nd ed.)*. Paju, Gyeonggi: Yangseowon.
- Ki, S.-J. (2012).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school adjustment -focused on the deduction of the political implica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7*(5), 127-136.
- Kim, B. R. (2013). *The effects of the collective career exploration counseling program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career identity of the dropout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C.-K., Cho, M.-K., Choi, M.-S & Kim, J.-H. (2013).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adjustment, and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7*(1), 1-15, Seoul, Korea.
- Kim, H. G. (2012). The effect of the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mother-child relationship-as perceived by the child on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6), 65-75.
- Kim, S.-J. & Kin, H.-S. (2011). Father's communication style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ediation effect of eco-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Elemen-*

- tary Counseling*, 10(2), 203-221.
- Kim, H. H. (1998). *Development of self-esteem in adolescence: It's relation to environment variables and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 Kim, J. S., & Park, J. H. (1997). A cross-sectional survey to compare the child nurturing attitude of mothers perceived by children and by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Maternal & Child Health*, 1(1), 59-77.
- Kim, K. E., & Choi, E. H. (2010).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adolescents' adjustment at school -focused on mediation effect of self-resilienc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9(4), 641-653.
- Kim, S.-H.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yeongnam, Korea.
- Kim, S. M. (2003). *The influence upon children of self-esteem through the parents education on the theory of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Y. (2011). *The effects of career-decision-making type, self-efficacy in career-decision-making, self-esteem, and anxiety on school maladjustments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Cheonan, Korea.
- Kim, Y.-G., Lee, S.-J., & Shin, H.-S. (2008). *A study of family strengths, self-esteems, adjustments to school life perceived by adolescent*. Seoul: Kyobo Book.
- Kwon, C-S. & Yi, C-R. (2011). The effects of parental nurturing attitudes on gifted and nongifted children's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arth Science Education*, 4(3), 251-257.
- Lee, E.-M., & Yeo, T.-C. (2013).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self-encouragement and school life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2(3), 385-398.
- Lee, H.-K. (2009). *The relationship of family strength and school maladjust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Y. & Hwang, G.-H. (2012). Moderating effect of tempera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social competenc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30, 537-550.
- Lee, I. S., & Lee, K.-L. (2008). The relationship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s self-esteem and school maladjustment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1(1), 11-22.
- Lee, J. H.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ild's loneliness and self-esteem, peer competence, his/her mother's rearing attitud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O., Lee, M.-H., & Han, B.-H. (2009). The Effect of the parents' nurturing attitude on personalities and school adaptations. *Korean Business Review*, 2(2), 181-201.
- Lee, S. B., & Shin, Y. (2010). Associations of aggression, maternal rejection/neglect, child temperament, and daycare experience: the moderating effect self-regul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3), 73-80.
- Lee, S. H. (2013). *Case study of teenagers that drop out school due to lack of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H., Park, J.-Y., Kim, Y.-H., Chang, Y.-E., & Auh, S.-Y. (2009). The effects of perceived family strength and ego-resilienc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o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2), 305-316.
- Lee, W. E., & Kim, D. I. (2009). Facilitating factors classification for successful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7(4), 89-118.
- Lim, J. A. (2005). *A study on the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im, S.-A. (2013).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attitud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self-esteem influencing student's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6(1), 121-138.
-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 Rosenberg.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Medinnus, G. R. (1967). *Readings in the psychology of pa-*

- rent-child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Moon, S.-B. (201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understand and apply (Korean edition)*. Seoul: Hakjisa.
- Nam, S.-H., & Baik, J.-S. (2011).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adjustment and self-esteem of child and early adolescent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9(1), 3-12.
- Nam, Y. J., & Park, T. Y. (2009).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aptation.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6(4), 47-71.
- Oh, J. O.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of family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4(2), 153-172.
- Olson, D. H., & DeFrain, J. (2003). *Marriage and the family: intimacy, strengths and diversity*. New York: McGraw Hill.
- Park, E. Y. (2010). *Protective factors that influence upon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focused on self-esteem, parental attachment, peer attachment, vocational maturity and income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ju University, Gwangju, Korea.
- Park, H. J. (2011). *A study on commissioned alternative education as postmodern education policy for dropout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shin University, Gyeongbuk, Korea.
- Park, J. H., & Lee, M.-S. (2014). *The effect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on depression in the transition period: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support,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support*.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3), 45-63.
- Park, K.-J. (2011).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steem in the institutionalized children on their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buk, Korea.
- Park, S., & Yoon, C. (2013). The effects of personal and family variable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6th and 9th grade korean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4(3), 147-169.
- Park, S. E. (2014). *The effects of the school adjustment on latent intention of leaving school: the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and career deci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Daegu, Korea.
- Richman, J. M., Bowen, G. L., & Woolley, M. E. (2004). *School failure: an eco-interactional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M. W. Fraser (Ed.): *Ris and Resilience in Childhood (133-160)*. (2nd ed.). Washington D.C.: NASW Press.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eong, T. J. (2012). *Easy statistical analysis by using SPSS/AMOS*. Seoul: Hakjisa.
- Shaffer, D. R.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 adolescence*. (5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z
- Sim, M. Y. & Hwang, S. K. (2013). A study of the effect family strength on the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ocial support-focus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of the Gyeongnam Region-.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7(3), 1-17.
- Song, In-Sub. (1984). The construct validity of higher order structure of self-concept. *The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22(1), 55-64.
- Song, J.-J. (2014). *SPSS/AMOS statistical analysis method necessary for writing thesis*. (2nd ed). Seoul: 21cbook.
- Song, M.-W. (1999). *Influence of self-concept and anxiety on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Korea.
- Tein, J., Roosa, M. W., & Michaels, M. (1994). Agreement between parent and child reports on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341-355.
- Woo, S. (2010). *PASW (STATISTICS 18.0)(Korean edition)*. Seoul: In Gangwabokji.
- Yoo, A. J., Lee, J. S., & Suh, J. H. (2004).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elinquent behaviors depending on family structur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9(3), 161-180.
- Yoo, Y. J. (20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strengths scale for strengthening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119-151.
- Yun, M.-W. (2006). *Actual conditions of school-leaving teenagers -centering o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Korea.

- 접수 일 : 2014년 05월 15일
- 심사 일 : 2014년 06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8월 12일